논어 3편 팔일 21장 · 원문·풀이

哀公問社於宰我。宰我對曰：「夏后氏以松，殷人以柏，周人以栗。曰：『使民戰栗。』」子聞之，曰：「成事不說，遂事不諫，既往不咎。」

독음 · 애공문사어재아 재아대왈 하후씨이송 은인이백 주인이률 왈 사민전률 자문지 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

쉬운 풀이(요약) · 재아가 사직의 나무를 백성을 두렵게 하는 뜻으로 설명하자 공자는 이미 된 일을 들추고 지난 잘못을 책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哀 슬플 애 애 / 公 공변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社 토지의 신 사 사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宰 주관할 재 재 / 我 자기 아 아 / 對 마주볼 대 대

曰 가로 왈 / 夏 여름 하 하 / 后 임금 후 후 / 氏 성 씨 씨

以 써 이 이 / 松 소나무 송 송 / 殷 많을 은 은 / 人 사람 인

柏 나무 이름 백 백 / 周 두루 주 주 / 栗 밤나무 률 률 / 使 하여금 사 사

民 백성 민 민 / 戰 싸움 전 전 / 子 아들 자 / 聞 들을 문 문

之 갈 지 / 成 이룰 성 성 / 事 일 사 사 / 不 아닐 불

說 기쁠 열 / 遂 사무칠 수 수 / 諫 간할 간 간 / 既 이미 기

往 갈 왕 왕 / 咎 허물 구 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